****

새시대 교수법 180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Peck Cho

****

기억나는 선생님 1

내 기억에 가장 생생하게 남아 있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신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볼만합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선생님이 기억되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악몽같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머리가 약간 벗겨지고 콧수염을 기른 50대 초반인 응용수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입학해서 들은 첫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강의 첫날부터 분필하나만 달랑 들고 들어오셨고 판서는 강의록에 의지하는 적이 없이 강의 시간 내내 술술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간혹 가다 종이쪽지 한 장 정도 들고 오시는데 그 마저 가끔 힐끔힐끔 쳐다보실 뿐이었습니다.

공대 대학원 응용수학이어서 판서해야 할 수식이 여간 길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수식을 잘 못 적는 법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기 일쑤였습니다. 교수님은 마치 학생과 단 둘이 앉아 대화를 하듯이 항상 차분하고 은은한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감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이 가장 훌륭한 교수님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략 다섯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대학원생으로써 보는 첫 시험이어서 단단히 준비했던 시험이었지요. 그러나 첫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헤매다가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뿔싸! 두 번째 문제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시 10 분이 휘딱 지나가버렸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지요. "이럴수록 차분해지자. 우측 돌파가 안 되면 좌측 돌파하는 것이 현명하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작전을 바꿨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해서 마지막 문제부터 풀어 나가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나 웬걸, 그것마저 딱 막히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무척 괴롭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별의별 비관적인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빵점! 낙제! 낙오자! 패배자! 불쌍한 인생! 결국 시험지를 똘똘 뭉

개버리고 시험장을 나와 버렸습니다.

죽을 맛으로 이틀을 지내고 교수님을 찾아 갔습니다. 제 모습이 그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게 생각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원생이 되어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어서 잔뜩 긴장하는 바람에 시험을 망쳤으니 이젠 어쩔 수없이 수강을 취소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드린 공이 아깝지 않은가. 다음 시험을 잘 볼 자신 있어요? 그럼 첫 시험은 없던 것으로 하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나는 지난 이틀간 이 시험이 세상 모든 것인 냥 오로지 이 시험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교수님을 대할 일을 마음 졸이며 애간장이 다 녹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빵점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해 주시지 않은가. 그리고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활짝 열어주시지 않은가.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 교수님은 JFM이라는 공학 계에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의 편집장이셨던 세계적인 석학이셨습니다. 그 때 그분께서 저를 그저 하찮은 대학원 신입생으로만 보고 첫 시험에 빵점을 주셨으면 저는 좌절한 나머지 대학원 생활이 무척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티브 데이비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편집 코너>>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훌륭하신 선생님의 경우, 또는 반대인 경우도 좋습니다. 위 글 정도로 짤막하게 적어 제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벽, 2003